

ISSN 1229-8565 (print)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http://dx.doi.org/10.7856/kjcls.2016.27.1.95>

ISSN 2287-5190 (on-line)

27(1) : 95~108, 2016

27(1) : 95~108, 2016

농촌 다문화 가정의 특성 및 유형분석

이 남 호 · 김 은 순[†] · 김 정 연¹⁾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충남연구원 지역 · 도시연구부¹⁾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Namhyo Lee · Uhn-Soon Gim[†] · Jeong-Youn Kim¹⁾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Devison of Regional & Urban Study, Chungnam Institute, Gongju, Korea¹⁾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and to classify their types by applying multi-variate techniques and cluster analyses. Data for the study were obtained by a surveying 120 married migrant females in rural areas of Chungchongnam-do, South Korea. By utilizing the factor analys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16 basic variables related to these femal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6 factors: 'marriage length and age', 'language skill of migrant female', 'language skill of husband', 'family satisfaction', 'income and education', and 'general living satisfaction in Korea with remittance'. By applying the cluster analysis,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5 types: 'stable settlement', 'average but stagnant', 'below average yet positive', 'high-income with little communication', and 'young low-income'. In all type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regarding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igrant femal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social statu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rural area, migrant female,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I. 서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에 0.05%에서 2010년에 2.2%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1).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확산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¹⁾ 농촌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1990년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14.

Received: 12 January, 2016 Revised: 14 January, 2016 Accepted: 5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Uhn-Soon Gim Tel: +82-42-821-6750 E-mail: ugim@c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부터 국제결혼 알선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총각과 중국 연변의 조선족 여성과의 결합을 비롯하여 접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 등과의 결합으로 확대되었다.

농촌 다문화 가정의 증가 원인은 크게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Park & Choe 2008).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들고 있다. 1990년 이래 2006년까지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초과²⁾하고 있으며 특히 읍부에서의 남성초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더욱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기피하고 떠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반면에 농촌에 거주하는 저학력의 남성들은 농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정보화의 물결 속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국외적 요인으로는 한국의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관련되어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³⁾(Kim 2006).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한식 등이 인기를 얻는 등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주민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에서의 다문화 가정 형성은 대체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남성과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혼재해 있는 농촌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정착은 그 자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

움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은 가정 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우리 농업·농촌의 잠재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화를 형성하고 정착해 가는 단계에서 우리의 기존 문화와 수용할 문화를 융합해가면서, 이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해 나아가겠다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과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 관련 연구는 대체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Hwang 2007; Jeong 2011; Shin 2011; Park 2012; Lee 2012; Hong 2012; Kang 2012)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거나 다문화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Park & Choe 2008; Kang 2009; Jung 2010; Hwang 2011; Park et al. Cho 2012; 2011; Woo 201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Jung(2010)은 전남·광주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 및 복지 서비스가 일회적·중복적이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및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따라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사회복지서비스·양육보조 등의 기존의 지원책을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이주여성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ang(2009)은 가족 가치관과 부부관계,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인 사회 적응도를 분석하였고, Park & Choe(2008)와 Park et al.(2011)은 농어촌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 적응실태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특성을

- 1)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중에서도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5년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결혼한 남자의 국제결혼 비율을 보면 도시지역(동부)은 29.1%, 농촌지역(읍면부)은 41.1%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감소하여 도시지역은 16.2% 농촌지역은 29.1%를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3).
- 2) 2010년 기준 내국인의 결혼적령기(남성 28~32세)의 성비가 103이 되고,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110이다. (Statistics Korea 2011).
- 3)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선교활동을 통한 국제결혼도 다문화 가정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Kim 2006).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oo(2012)는 충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타 지역과 충남의 다문화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 또는 이주 여성의 생활 적응, 사회적·문화적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반면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을 유형화 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획일적 정책이 아닌 유형별 맞춤형 정책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을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한다.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 작업을 위해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특성들을 몇 개의 공통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행하고 이들 공통요인에 의거하여 농촌 다문화가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농촌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농촌 다문화가정의 유형

별 특성 및 성격을 도출한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군지역과 도·농 통합시의 읍·면지역을 의미한다.⁴⁾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의 다문화 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주여성 중에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한 120명(농가 58명, 비농가 62명)을 1:1 대면 설문을 행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 이주 여성에게 설문지의 목적, 설문항목별 내용 및 응답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 또는 (한글이 서투른 대상자의 경우는) 조사자가 묻고 기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분석방법

농촌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양한 지표를 압축하거나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다변량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을 소수의 공통요인으로 요약하고, 이들 공통요인의 요인점수를 근간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농촌 다문화 가정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농촌다문화 이주여성 120명의 특성을 나타내는 16개 기초변수를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지표들로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기간, 결혼생활

4)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삶의 질 향상법 제3조에서 '시와 군 지역 중 ① 읍·면 전지역, ② 동 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간, 본인 연령, 배우자 연령, 교육수준이 선정되었고,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배우자 만족도, 자녀 만족도, 시부모 만족도, 시댁·친척 만족도가 이용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결혼 생활의 소통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로서 이주 여성 본인의 한국어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배우자(남편)의 이주 여성의 모국어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선정되었으며, 경제적 척도로서 다문화 가구당 연간 수입과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 송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이주 여성이 느끼는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먼저 조사된 농촌 다문화 가정 여성 120명에 대한 16개 기초변수의 자료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16개 기초변수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통합지표인 소수의 공통요인을 추출한다.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의 공통요인 6개를 추출하고, 각 공통요인과 16개 기초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행렬(factor loading matrix)을 작성하였다. 다음은 요인부하행렬을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각각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전체 120명 다문화 가정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분석에는 Ward의 계층적 분류법을 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해석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120명의 거주지 분포는 공주 59명, 천안 28명, 논산 18명, 아산 10명, 천안 5명이다. 이들의 본국은 베트남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명, 필리핀 18명, 캄보디아 17명,

일본 7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동남아 이주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농가와 비농가에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 여성은 대부분이 비농가에 분포하고 있다 (Table 1).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은 약 6년 3개월이고, 결혼 기간별로 보면 2~6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6~10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은 한국 생활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조사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결혼하면서 한국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2.5세인데 반하여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나타나서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연령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주여성 본인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많다. 반면에, 배우자의 경우는 20대 이하는 극소수인데 비하여 40대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그 다음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20-30대의 젊은 이주여성과 40-50대의 한국농촌 남성이 결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한 다문화 가정의 평균 가족수는 농가 4.24명 비농가 3.55명으로 농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농촌 다문화 가정의 학력 분포는 이주여성 본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졸과 고졸이 주를 이루는데, 농가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중졸의 비중이 높고, 비농가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고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는 농가, 비농가 공히 평균적으로 고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가는 중졸이 많고 비농가는 대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120명중 50.2%의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직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농가보다는 비농가 거주 이주여성이 결혼 전 본국에서 직업을 가졌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에 직업 또는 부업을 원하는가에

5) 이때 이론적으로 16개의 공통요인을 추출할 수 있으나 전체변동의 일정수준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수의 중요한 요인만을 선정하게 된다. 통상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하는바, 이는 1개의 공통요인이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초변수의 변동을 설명할 때 의미가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하였다.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the respondent families

			Unit: person (%)	
	Farm	Non-Farm	Farm	Non-Farm
<i>Region(persons, %)</i>				
Gongju	29(50.0)	30(48.4)	2(36.4)	3(6.1)
Cheonan	22(37.9)	6(9.7)	27(49.1)	20(40.8)
Nonsan	6(10.3)	12(19.4)	21(38.2)	20(40.8)
Asan	1(1.7)	9(14.5)	5(9.1)	6(12.2)
Kyeryong	0(0.0)	5(8.1)		
<i>Nationality of wife(persons, %)</i>				
Vietnamese	24(41.4)	30(48.4)	5(9.3)	6(12.5)
Chinese	8(13.8)	11(17.7)	14(25.9)	9(18.8)
Filipina	11(19.0)	7(11.3)	29(53.7)	19(39.6)
Cambodian	12(20.7)	5(8.1)	6(11.1)	14(29.2)
Japanese	1(1.7)	6(9.7)		
Mongolian	1(1.7)	2(3.2)	8(13.8)	13(21.0)
NorthKorean	1(1.7)	0(0.0)	23(39.7)	23(37.1)
Taiwanese	0(0.0)	1(1.6)	21(36.2)	17(27.4)
Family members	4.24	3.55	6(10.3)	9(14.5)
Wife's Age(years old)	31.6	33.8	Average marriage length(years)	5.80 6.77
Husband's Age	46.1	46.9	Previous Job(%)	0.45 0.58
			Wish future job(%)	0.81 0.75

Table 2. Distribution of ages between wife and husband

Classification	Unit: persons (%)			
	Husband's age (years old)			Total
	Below 40	40-50	Above 50	
Wife's age (years old)				
Below 30	20(16.5)	36(29.8)	5(4.1)	61(50.4)
30-40	6(5.0)	18(14.9)	13(10.7)	37(30.6)
Above 40	0(0)	9(7.4)	13(11.6)	22(19.0)
Total	26(21.5)	63(52.1)	31(26.4)	120(100)

Table 3. Own evaluation for quality variables by wives (migrant females)

Degree (1 worst~5 best)	Unit: mean (SD)						t-value
	Total		Farm		Non-Farm		
	Mean	(S,D)	Mean	(S,D)	Mean	(S,D)	
Wife's reading skill	3.37	(0.98)	3.09	(0.80)	3.42	(0.66)	1.18
Wife's speaking skill	3.25	(0.75)	3.04	(0.79)	3.36	(0.68)	1.07
Husband's reading skill	1.87	(1.15)	1.71	(0.98)	2.02	(1.30)	1.39
Husband's speaking skill	1.94	(1.14)	1.75	(0.97)	2.11	(1.27)	1.72
Satisfaction w/ husband	3.87	(1.03)	4.12	(0.92)	3.65	(1.09)	2.58*
Satisfaction w/ children	4.26	(0.89)	4.43	(0.80)	4.11	(0.96)	1.96*
Satisfaction w/ parent-in-law	3.63	(1.02)	3.70	(0.98)	3.56	(1.06)	0.77
Satisfaction w/ rests-in-laws	3.46	(1.11)	3.42	(1.00)	3.50	(1.21)	0.39
Satisfaction w/ remittance	2.13	(1.17)	2.14	(1.18)	2.13	(1.17)	0.04
Satisfaction w/ income	2.60	(0.89)	2.62	(0.80)	2.58	(0.98)	0.25
Overall satisfaction in Korea	3.33	(1.01)	3.50	(0.92)	3.18	(1.06)	1.78

* p < 0.05, S,D: standard deviation

대하여 농가 이주여성의 81%, 비농가 이주여성의 75%가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즉 다문화 이주여성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원하며, 특히 농가의 이주여성이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농촌 다문화 가정의 언어소통 정도 및 이주여성의 각종 만족도 등의 질적 변수에 대하여 이주여성의 자체평가 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이들 질적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에 의한 평가이다. 먼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본인의 한국어 숙달 정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읽기 말하기 둘 다 보통 수준(3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배우자의 이주여성(부인)의 본국 언어에 대한 숙달 정도는 평균적으로 읽기와 말하기 모두에 대해 2점 미만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주된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배우자 자녀 시부모 및 시댁친척 등의 가족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보면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부모 만족도나 시댁친척 만족도의 경우 각각 평균 3.63, 3.46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녀 및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척도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만족도의 경우는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2.6으로 보통수준이하를 보였으며,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송금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13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농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3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곧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경제적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농촌 다문화가정을 이분법적으로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반 만족도 관련 변수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배우자 만족도와 자녀만족도의 경우는 5% 이내 유의수준에서 농가 비농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타의 모든 변수 특히 경제적 만족도 관련 변수인 소득수준 만족도 송금수준 만족도와 전반적 한국생활 만족도 등은 농가 비농가 간에 전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정을 농가·비농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이분법적인 다문화 정책의 수립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놓여있는 농촌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농촌 다문화 가정을 농가·비농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농촌 다문화 가정 여성의 전반적인 여건 및 환경을 구성하는 인구·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여러 영역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농촌 다문화 가정의 다양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유형구분을 시도한다.

2.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유형구분과 특성

1) 요인분석 결과

농촌 다문화 가정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먼저 조사 대상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120명 각각의 16개 기초 변수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 요인 6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6개의 공통요인의 총기여율이 77.9%로 나타나서 16개 기초변수에 관한 정보의 3/4 이상을 이들 6개 공통요인에 의하여 집약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여기서 요인부하량은 각 공통요인과 16개 기초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각 공통인자는 모든 기초변수와 관련성이 있고, 그 중 소수의 기초변수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초변수에 의해 각

Table 4. Factor loading matrix and communality by factor analysi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Communality
<i>Marriage length & age</i>							
Living length in Korea	0.9311	-0.0053	0.216	0.0017	0.025	0.0259	0.9149
Marriage length	0.9310	0.0171	0.1914	0.0788	0.0291	0.0208	0.9112
Wife's age	0.8245	-0.1072	-0.0439	-0.0467	-0.0854	0.2711	0.7762
Husband's age	0.5643	-0.0097	-0.061	0.0468	-0.4064	-0.2397	0.547
<i>Family satisfaction</i>							
Satisfaction w/parent-in-law	0.0083	0.8841	0.1441	0.0765	0.0776	-0.0162	0.8146
Satisfaction w/rests-in-law	0.0131	0.8154	0.088	-0.0247	0.212	-0.0062	0.7184
Satisfaction w/ husband	-0.1078	0.7912	-0.13	-0.0289	0.0735	0.0048	0.6608
Satisfaction w/ children	-0.001	0.7516	0.1155	-0.1239	-0.1672	-0.0796	0.6278
<i>Wife's language skill</i>							
Wife's speaking skill	0.1193	0.0359	0.9202	0.1189	-0.0891	-0.012	0.8844
Wife's reading skill	0.1255	0.1469	0.9067	0.0044	0.0896	0.0006	0.8675
<i>Husband's language skill</i>							
Husband's reading skill	-0.0119	-0.0392	0.0507	0.9727	0.1033	0.0175	0.9613
Husband's speaking skill	0.0753	-0.0356	0.0691	0.9656	0.1088	0.0389	0.9575
<i>General living satisfaction</i>							
Overall satisfaction inKorea	0.0797	0.3366	0.0162	0.0379	0.7747	0.0153	0.7217
Satisfaction w/ remittance	-0.2387	-0.1284	-0.0235	0.287	0.6732	-0.1219	0.6244
<i>Economic potential</i>							
Wife's education	0.202	-0.0786	0.3151	0.0107	0.1723	0.7808	0.7857
Income level	-0.0282	-0.0125	-0.3059	0.0521	-0.2141	0.7381	0.6879
<i>Eigenvalue</i>							
Individual contribution(%)	2.8845	2.811	2.0175	2.0125	1.4255	1.3102	-
Cumulative contribution (%)	0.1803	0.1757	0.1261	0.1258	0.0891	0.0819	-
	0.1803	0.356	0.4821	0.6078	0.6969	0.7788	-

공통요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추출된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각 변수의 공통성(communality)은 0.547~0.9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을 중심으로 6개 공통요인의 특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1의 요인부하량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생활기간, 결혼생활기간, 본인연령, 배우자 연령 등의 기초변수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이 공통요인은 이주여성의 '결혼기간·연령'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로 해석된다.

요인2의 요인부하량은 배우자 만족도, 자녀 만족도, 시부모 만족도, 시댁친척 만족도 등의 변수와 긴밀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요인2는 이주여성의 '가족 만족도 성향'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로서 이해된다.

요인3의 요인부하량은 이주여성 본인의 한국어 읽기실력과 말하기실력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요인3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요인4의 요인부하량은 이주여성의 배우자의 이주여성(부인) 모국어 읽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요인4는 이주여성 배우자의 '부인 모국어 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요인5는 이주여성이 느끼는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와 이주여성의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 만족

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송금액 만족수준과 상호 높은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요인5는 이주여성의 '종합적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로서 해석된다.

요인6은 농촌 다문화 가구당 연간수입과 이주여성 본인의 교육수준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높은 한국 남성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높는데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한국에서 취업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인6은 다문화 가정의 '잠재적 경제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해석된다.

2) 군집분석 결과

요인분석에 의해 구한 충남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120호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⁶⁾으로 군집화 되었다. 조사된 농촌 다문화 가정 120호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에 22호(18.3%), 제2유

형에 32호(26.7%), 제3유형에 46호(38.3%), 제4유형에 12호(10.0%), 제5유형에 8호(6.7%)가 포함된다.

5개 군집유형별 평균 요인점수는 Table 5와 같다. 요인1('결혼기간·연령')은 제1유형의 군집형성에 가장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에 제5유형과 제4유형의 군집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2('가족만족도')는 제3유형의 군집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제5유형과 제2유형의 군집형성에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인3(이주여성의 '한국어수준')은 제4유형의 군집형성에 가장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요인4(배우자의 '부인모국어수준')는 제5유형과 제4유형의 군집형성에 가장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요인5('종합적 만족수준')는 제1유형의 군집형성에 높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제4유형과 제2유형의 군집형성에 높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 요인6('잠재적 경제성')은 제4유형의 군집형성에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제5유형에는 비교적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 특성

농촌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

Table 5. Factor scores by multi-cultural family type

Factors (F1-F6)	Total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F-value
No. of cases(families)	120	22	32	46	12	8	-
F1. Marriage length & age	-0.09	1.39 ^a	-0.04 ^b	-0.43 ^{b,c}	-0.93 ^{c,d}	-1.11 ^d	28.1 ^{**}
F2. Family satisfaction	-0.13	-0.37 ^b	-0.72 ^b	0.68 ^a	-0.41 ^b	-1.3 ^c	22.1 ^{**}
F3. Wife's language skill	-0.03	0.01 ^a	0.38 ^a	0.03 ^a	-1.23 ^b	-0.33 ^a	6.1 ^{**}
F4. Husband's language skill	0.38	0.22 ^b	-0.27 ^b	-0.01 ^b	2.44 ^a	2.61 ^a	29.5 ^{**}
F5. General living satisfaction	-0.13	0.86 ^a	-0.68 ^c	0.04 ^b	-1.31 ^d	0.21 ^b	22.4 ^{**}
F6. Economic potential	0.21	0.17 ^b	0.05 ^b	-0.23 ^{b,c}	2.98 ^a	-0.69 ^c	41.2 ^{**}

**p < 0.01

Superscripts ^a, ^b, ^c, and ^d imply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by type are significant, where average factor scores in each type are as in the order a > b > c > d .

6) 군집분석에서 몇 개 유형으로 군집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군집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량이 급격히 증대하는 급변 점 즉, 거리계수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곳에서 대체로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 Semi Partial R2, F통계량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Hair et al. 2006).

여 유형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특성과 군집 유형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6에 나타나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의 결혼기간, 나이, 교육수준, 국적, 가구의 연간 수입, 본국 송금

액 수준, 배우자 만족수준, 전반적 한국생활 만족수준 등은 군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주여성의 전직 유무, 미래 경제 활동 의지 유무는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Table 6. Frequency analysis among types regarding major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Variable	Classificat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otal	χ^2 -value
Marriage length (years)	Below 2	0(0.0)	1(0.8)	8(6.7)	7(5.8)	5(4.2)	21(17.5)	74.57**
	2-6	2(1.7)	14(11.7)	22(18.3)	5(4.2)	3(2.5)	46(38.3)	
	6-10	9(7.5)	15(12.5)	14(11.7)	0(0.0)	0(0.0)	38(31.7)	
	Above 10	11(9.2)	2(1.7)	2(1.7)	0(0.0)	0(0.0)	15(12.5)	
Wife's age (years old)	Below 30	4(3.3)	12(10.0)	29(24.2)	7(5.8)	8(6.7)	60(50.0)	47.05**
	30-40	5(4.2)	16(13.3)	15(12.5)	1(0.8)	0(0.0)	37(30.8)	
	Above 40	13(10.8)	4(3.3)	2(1.7)	4(3.3)	0(0.0)	23(19.2)	
Wife's education	Til 9th grade	5(4.2)	13(10.8)	34(28.3)	9(7.5)	7(5.8)	68(56.7)	29.3**
	High school	12(10.0)	17(14.2)	10(8.3)	1(0.8)	1(0.8)	41(34.2)	
	Above college	5(4.2)	2(1.7)	2(1.7)	2(1.7)	0(0.0)	11(9.2)	
Wife's previous job	Yes	14(11.9)	14(11.9)	22(18.6)	9(7.6)	2(1.7)	61(51.7)	6.82
	No	8(6.8)	17(14.4)	23(19.5)	3(2.5)	6(5.1)	57(48.3)	
Wish future job	Yes	18(15.9)	21(18.6)	38(33.6)	7(6.2)	4(3.5)	88(77.8)	4.15
	No	3(2.7)	11(9.7)	8(7.1)	2(1.8)	1(0.9)	25(22.1)	
Wife's nationality	Vietnamese	7(5.8)	11(9.2)	30(25.0)	1(0.8)	5(4.2)	54(45.0)	48.20**
	Chinese	1(0.8)	6(5.0)	6(5.0)	4(3.3)	2(1.7)	19(15.8)	
	Filipina	6(5.0)	3(2.5)	6(5.0)	3(2.5)	0(0.0)	18(15.0)	
	Cambodian	1(0.8)	10(8.3)	4(3.3)	1(0.8)	1(0.8)	17(14.2)	
	Others	7(5.8)	2(1.7)	0(0.0)	3(2.5)	0(0.0)	12(10.0)	
Satisfaction with husband	Negative	1(0.8)	6(5.0)	0(0.0)	2(1.7)	1(0.8)	10(8.3)	38.00**
	Moderate	7(5.8)	14(11.7)	4(3.3)	5(4.2)	6(5.0)	36(30.0)	
	Positive	14(11.7)	12(10.0)	42(35.0)	5(4.2)	1(0.8)	74(61.7)	
General satisfaction in Korea	Negative	1(0.8)	11(9.2)	4(3.3)	2(1.7)	1(0.8)	19(15.8)	32.18**
	Moderate	4(3.3)	15(12.5)	19(15.8)	8(6.7)	6(5.0)	52(43.3)	
	Positive	17(14.2)	6(5.0)	23(19.2)	2(1.7)	1(0.8)	49(40.8)	
Sending money to home (million won)	None	10(8.3)	18(15.0)	15(12.5)	6(5.0)	1(0.8)	50(41.7)	35.76**
	Less than 1	9(7.5)	9(7.5)	20(16.7)	0(0.0)	2(1.7)	40(33.3)	
	1-2	1(0.8)	4(3.3)	9(7.5)	1(0.8)	4(3.3)	19(15.8)	
	More than 2	2(1.7)	1(0.8)	2(1.7)	5(4.2)	1(0.8)	11(9.2)	
Income level (million won)	Less than 10	0(0.0)	2(1.7)	2(1.7)	0(0.0)	3(2.5)	7(5.8)	105.77**
	10-20	8(6.7)	9(7.5)	18(15.0)	0(0.0)	3(2.5)	38(31.7)	
	20-30	10(8.3)	13(10.8)	18(15.0)	0(0.0)	1(0.8)	42(35.0)	
	30-40	4(3.3)	5(4.2)	7(5.8)	0(0.0)	1(0.8)	17(14.2)	
	More than 40	0(0.0)	3(2.5)	1(0.8)	12(10)	0(0.0)	16(13.3)	

** p < 0.01

않았다⁷⁾. 이들 주요 특성을 통하여 군집별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의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대부분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이고 이들 여성의 3/5 정도가 40대를 이루는 대체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집단이다. 이 군집에 속하는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고졸포함)이 3/4를 차지하여서 비교적 고학력이고, 결혼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2/3에 해당하며, 향후 직업 또는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6/7에 해당한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각각 1/3을 점하고 있다. 이 군집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연간수입은 평균 2~3천만 원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연간 1~4천만 원 소득범주에 속하고 있어서 대체로 다문화 가정의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서 분포하고 있어서 비교적 동질적인 소득집단으로 이해된다. 이 군집의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송금액은 2/5정도가 전혀 송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체로 연간 1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송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집의 여성은 절대다수가 배우자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고 종합적인 생활만족도 또한 절대다수가 보통이상의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긍정적 정착형'유형으로 파악된다. 제1유형에는 조사대상 농촌 다문화 가정의 18.3%가 포함된다.

제2유형의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대부분 결혼기간이 2~10년 기간이고 이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로 이루어져서 결혼초기를 경과하고 과도기에 있는 비교적 젊은 집단으로 한국어 소통수준이 가장 우수한 그룹이다 Table 5, 6. 이 군집에 속하는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고졸포함)가 9/10을 차지하고, 결혼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2/5 정도이며, 향후 직업 또는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2/3로 대체적으로 과거 또는 미래의 이주여성 본인의 직업에 대한 의지가 여타 4개 유형에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본국 분포는 전체 조사대상 캄보디아 여성의 3/5이 이 군집에 해당하여서 비율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국인 베트남인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군집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연간수입은 연간 1천만 원 미만에서부터 4천만 원 이상 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소득수준이 다양한 이질적인 그룹으로 파악된다.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송금액은 4/7정도가 전혀 송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연간 100-200만 원 수준에서 송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수준과 종합적 생활만족 수준은 각각 보통수준 이하(보통 정도 포함)가 3/5, 4/5를 점하고 있으며 더욱이 배우자만족수준이나 종합적 생활만족수준이 아예 부정적인 경우도 각각 1/5, 1/3을 점유하고 있다. 즉 제2유형의 군집은 대부분의 통합지표가 중간 수준을 보이나 가족만족 수준 뿐 아니라 전반적 생활만족 수준이 낮은 그룹으로 '평균 수준의 침체형' 유형으로 파악된다. 제2유형의 군집에는 조사대상 농촌 다문화 가정의 26.7%가 해당된다.

제3유형의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대부분이 결혼기간 10년 이내에 해당하며 2/3 정도가 20대이고,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중졸포함)가 2/5를 차지한다. 이 군집의 이주여성이 결혼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절반 정도인데 반하여, 향후 직업 또는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은 3/4를 점할 만큼 미래에 대한 의욕이 있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본국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전체 베트남 여성의 3/5이 이 군집에 포함되어 이들이 이 군집의 주류를 형성하고 나머지는 중국인, 필리핀인, 캄보디아인 순이다. 이 군집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연간 수입은 1~3천만 원 범주에 3/4 이상이 포함되어 비교적 동질적인 소득 집단으로 파악된다. 이 군집의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송금액은 1/3이 전혀 송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2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송금을 하고 있다(Table 5, 6). 이 군집을 형성하는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수준

7) 특히 미래 경제활동 의지 유무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은 5개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나이 학력 소득수준을 떠나서 미래 경제활동할 의사가 높는데 기인한다고 봄(Table 6).

은 전원이 보통수준이상(보통정도 포함)을 나타내며, 종합적 생활만족 수준 또한 대부분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혼생활과 한국생활을 하고 있어서 '평균 수준 이하의 긍정형' 유형으로 파악된다.

제3유형은 5개 군집 유형 중에서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의 가장 많은 비율(38.3%)이 포함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주된 집단으로 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이나 이들 다문화 가정의 소득수준이 평균수준이하이나 이주여성의 장래 직업에 대한 의욕이 있고, 배우자 만족수준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만족 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희망적인 그룹이다.

제4유형은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반 이상이 결혼기간이 2년 이내로 짧고, 나머지 여성도 6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결혼기간을 가지는 반면에, 이 군집을 이루는 이주여성의 1/3이 40대이다. 이 군집의 이주여성의 한국어 소통 수준은 5개 군집 중에서 최하 수준이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중졸포함)가 3/4을 차지하여 비교적 저학력 성향이며, 결혼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3/4 정도이며, 향후 직업 또는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 또한 3/4 정도이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본국 분포는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주를 이룬다. 이 군집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연간수입은 모두 4천만 원 이상으로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 전체 중 가장 고수입 집단으로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송금액은 절반 정도가 전혀 송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가정은 연간 100-200만 원 수준에서 송금을 하고 있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배우자 만족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 이상(보통정도 포함)인 반면에 종합적 생활만족 수준은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제4유형에는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의 10%가 포함되고 있다.

제4유형은 결혼 초기인데 반하여 부부 연령이 평균을 상회하며 이주여성의 언어소통은 가장 낮은 반면에, 가구의 소득수준은 높으나 종합적 만족 수준은 평균 정도인 유형으로 '고소득 비소통형'이라고 보겠다. 이는 평균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

우 언어소통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젊은 이주여성들 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그룹의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5유형은 5개 군집 유형 중에서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의 가장 적은 비율(6.7%)이 포함되는 유형이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전부가 결혼기간이 6년 이내이며, 전원 20대로 이루어진 가장 젊은 집단이다. 이 군집의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중졸 포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학력 성향이며, 결혼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1/4에 불과하나, 응답자의 4/5가 향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래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이 높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은 베트남인과 중국인이 주를 이룬다. 이 군집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연간수입은 모두 2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절반 이상은 1천만 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저소득 집단으로 형성되어있으나 이주여성의 배우자만족도나 종합적 만족수준은 대체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젊은 저소득형' 유형으로 이해된다. 이 군집의 대부분 다문화 가정에서는 이주여성의 본국에 연 200만 원 미만에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4개 유형에서 절반 정도의 가정에서 이주여성의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바, 이는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은 데 기인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이주여성의 모국어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의 배려가 높은 그룹으로 유추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Table 5, 6. 이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향후 특별히 가구소득의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대체로 중졸 이하의 저학력의 의욕 있는 젊은 이주여성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기회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5개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향상 및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 향상에 대한 의지가 높다. 농촌 다문화 가정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소득수준이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제4유형에서부터 소득수준이 최

Table 7. Most important thing & policy measure for having future jobs

Most important thing (%)		Most important policy measure (%)	
Improving own skill or knowledge	37.4	Vocational education or programmes	50.6
Support or understanding by husband	20.9	Institutional support for new jobs	16.9
Institutional support by the government	19.8	Direct connection to new jobs	13.5
Removing biased prejudice to multi-cultural family	7.7	Financial support for new jobs	7.9
Kids' growing	6.6	Others	11.2
Others	7.7		

하 수준에 해당하는 제5유형에 이르기 까지 5개 유형 평균적으로 이주여성의 3/4 정도가 미래에 직업 또는 부업으로의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촌 다문화 가정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의욕이 있는 이들 20-30대의 젊은 이주여성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농촌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이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7.4%가 본인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데 대한 남편의 이해·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⁸⁾ 문제는 이들 농촌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 이주여성이 자신의 미래 경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직업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다문화 정책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나이, 교육수준, 재능, 기타 여건 등에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본다.

IV. 요약 및 결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생활 적응, 사회적 문화적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거나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반면,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화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특성들을 소수의 공통요인으로 분류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행하고 이들 요인에 의거하여 농촌 다문화가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는 농촌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인 여건 및 환경을 구성하는 16개 기초변수가 이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공통요인 6개가 추출된 바, 이들 공통요인 6개의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1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배우자의 '결혼기간·연령'을 나타내고, 요인2는 이주여성의 배우자·자녀·시부모·시댁친척에 대한 '가족만족도'를 나타내고, 요인3은 이주여성 본인의 한국어 읽기·말하기 수준을, 요인4는 배우자의 이주여성(부인) 모국어 읽기·말하

8) 한편 자녀가 어려서 직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불과 6.6%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 다문화 가정의 평균 가구원수가 4인 이상으로 대체로 시부모님들이 함께 거주하므로써 취업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 수준을 나타내고, 요인5는 이주여성이 느끼는 전반적 한국생활 만족도와 이주여성의 본국으로의 송금액 만족도를 통합하여 '종합적 만족수준'을 나타내고, 요인6은 연간 가구수입과 이주여성 본인의 교육수준을 통합하여 다문화 가정의 '잠재적 경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 다문화 가정 120호 각각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촌 다문화 가정이 5개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는데, 이들의 유형별 분포는 제1유형에 18.3%, 제2유형에 26.7%, 제3유형에 38.3%, 제4유형에 10.0%, 제5유형에 6.7%가 포함되었다.

유형별로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안정적 정착형'으로 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연령이 가장 높으며 종합적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전반적인 한국생활이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평균 수준의 침체형'으로 이주여성의 평균 결혼기간 및 연령이 평균수준(30대 초의 6년 결혼기간)정도이며, 잠재적 경제성 또한 대체로 평균 정도 수준인 그룹으로, 이 군집의 이주여성의 한국어 소통수준은 우수한 편이나 가족만족수준과 종합적 만족수준 모두 낮은 유형이다. 제3유형은 '평균 수준 이하의 긍정형'으로 결혼기간 및 연령 모두 평균보다 낮고 잠재적 경제성 또한 평균수준을 하회하는데 비하여 가족만족 수준이 최상이고 종합적 생활만족 수준은 평균 정도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제4유형은 '고소득 비소통형'으로 결혼기간은 짧으나 이주여성 나이는 평균보다 높고, 소득수준은 가장 높은 군집이나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최하에 해당하고 종합적 생활만족 수준이 보통 수준에 그치는 군집이다. 제5유형은 '젊은 저소득형'으로 결혼기간과 부부연령 모두 가장 낮고, 가족만족 수준이 5개 유형중 가장 낮으며 잠재적 경제성도 최하 수준을 나타내나 종합적 만족수준은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희망적인 그룹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농촌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생활과 가족에 대한 만족은 일정 수준을 상회하나 경제적 만족은 대체로 낮아서 향후 경제적 수준 향상이 농촌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유형분석 결과 5개 유형 중 제3유형인 '평균수준 이하의 긍정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특징은 결혼기간 및 연령 모두 평균보다 낮고 잠재적 경제성(소득 및 교육수준) 또한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그룹의 경제적 향상과 그를 위한 잠재성 향상이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졸 전후의 저학력의 젊고 의욕 있는 이주여성들이 미래에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촌 다문화 가정의 소득의 향상 및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이들에게 각각의 교육 수준과 재능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기간 및 수료 후에 이들을 관련 분야로 취업 또는 부업으로 연계해 주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고소득 비소통형'(제4유형)에서 평균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젊은 이주여성들 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그룹의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평균 수준의 침체형'(제2유형)은 5개의 농촌다문화 가정 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군집으로, 제반 지표가 대체로 평균정도 수준이나 종합적 만족수준이 낮은 유형이며, 앞으로 이 유형의 농촌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적절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강조할 사항으로는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5개의 농촌 다문화 가정 유형이 공통적으로 이주여성 본인이 미래의 직업 또는 부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점이며, 미래 경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은 다양한 직업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향후 농촌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농촌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대체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남성과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코리아 드림을 갖고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자체가 가정 내의 경제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 내의 경제적 갈등 또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할 의욕이 있는 20-30대의 젊은 이주여성에게 교육수준, 나이, 재능, 기타 여건 등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젊고 의욕 있는 이들을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력으로 한국사회에 융합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농촌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농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향상이 곧 농촌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잠재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농촌 다문화 가정을 획일적 정책이 아닌 유형별 맞춤형 정책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의도하고 농촌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이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농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농촌 다문화 가정 유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Cho HS(2012) Phenomenological study on spouse role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Hanbuk University
 Hair JF,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Tatham R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Hong JS(2012)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Hwang BR(2011)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role of the visiting Korean instructor training for immigrant women. Master's Thesis, Hanil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University
 Hwang SS(2007)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Jeong HJ(2011) A study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s in multicultural families of rural areas.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Jung HY(2010) Studie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 woman. Master's Thesis, Chodang University
 Kang DJ(2009) A study on the family life of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area.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ang JH(2012) The relation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father's participation in rearing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adaptability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HM(2006) Global gender politics of cross-border marriage: in case of Korean Male and Vietnamese female, Econ Soc 70, 10-37
 Lee JS(2012)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courses for high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Dajin University
 Park DS, Ma SJ, Gwon IH(2011) Social adapt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task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ark DS, Choe GE(2008) Situ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areas and policy direction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ark HB(2012) Study on factor of adjusting to the school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in HS(2011) Study on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stics Korea(2010) 2010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Korea(2011) Situation of married immigrants in Korea by nationality
 Woo BN(2012) Changes in Chungcheongnam-do mult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lan,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